

## ‘지역사회에 헌신할人材 양성’

### 동천장학회 장학금 1천800만원 전달식

재단법인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수동)는 2월9일 오전11시 유림회관 2층에서 2007년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은 “인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예·기능에 소질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포천지역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동천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학생들에게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광영철 포천시 부시장은 “지난 2003년도에 설립된 동천장학회가 어려운 학생들과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앞

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꿈, 희망을 심어주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립 포천시의회 의장은 “동천장학회를 설립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수동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불치병이 아버지 병수발을 하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과 초중학교때 전학을 8번 다녀 새로운 환경에 적응 방법을 터득한 학생이야기가 언론



강수동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있다.

장학회 2007년 장학금 수여식 07. 2. 9(금) 11:00 장소: 유림회관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 사진 위는 고등학교 진학생, 아래는 대학교 진학생.



장학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 사진 위는 고등학교 진학생, 아래는 대학교 진학생.

에 보도됐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는 그 감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큰 꿈을 이루는 희망으로 잘 키워 나가기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은 대학교 진학생 6명, 고등학교 진학생 12명 등 모두 18명의 장학생에게 전달됐다. 고등학교 진학생의 경우는 50만원씩 12명에게 6백만원이 전달됐으며 대학교 진학생은 2백만원씩 6명에게 1천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 전년도 수혜학생 초청 및 기념품 지급을 통해 동천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재단법인 동천장학회는 지난 2003년5월1일 설립됐으며 강수동 이사장이 사재 8억원을 출연해 장학금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장학회로 성장 발전해 갔다.

동천장학회는 2004년도 2월 총 20명에게 2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19명에게 2천만원, 2006년도에는 18명에게 2천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2007년도 상반기 장학금 추천은 학습열의가 있으나 생활환경이 불우한 학생과 예의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추

천을 받아 심의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고등학교는 6개교 각 1명씩이며 중학교는 12개교 각 1명씩 전달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대학진학생 2명을 추가 선정해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2007년도 동천장학생 명단이다. ( )은 진학학교명

- ▶갈월중학교 박정혜(동남고등학교)
- ▶경북중학교 노희정(송우고등학교)
- ▶관인중학교 신윤희(관인고등학교)
- ▶내촌중학교 유보경(포천고등학교)
- ▶동남중학교 김현근(동남고등학교)
- ▶삼성중학교 최신지(포천일고등학교)
- ▶영중중학교 김유지(포천일고등학교)
- ▶영북중학교 우혜현(영북중학교)
- ▶일동중학교 이다영(일동고등학교)
- ▶이동중학교 김보슬(일동고등학교)
- ▶포천중학교 신경섭(포천일고등학교)
- ▶포천여자중학교 변다운(송우고등학교)
- ▶관인고등학교 정희영(한국항공대학교)
- ▶동남고등학교 김진일(한국외대대학교)
- ▶영북중학교고등학교 라연정(명지전문대학교)
- ▶일동종합고등학교 전신희(단국대학교)
- ▶포천고등학교 전은선(성균관대학교)
- ▶포천일고등학교 이성재(서울산업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④ 썩새(rustic bunting)

### 孝心이 깊은 썩새 이야기

어떤 효심이 깊은 여자아이가 썩이 흔하던 시대에 병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었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죽어서도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새가 되어 이승에 머물면서 부모님께 썩국을 끓여 드리고 싶어서 계속 ‘썩국 썩국 썩국’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새를孝心이 깊은 ‘썩새’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썩썩 썩썩’ 하고 울더군요.

썩새는 10월경부터 4월까지 포천(川)에서 흔히 발견되는 겨울 철새입니다.이 새는 워낙 경계심이 강하여 쉽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포천천변에서 많은 개체수가 월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멧새와 노랑턱 멧새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나 썩새는 짙은 갈색허리에 비늘무늬가 특징입니다.

썩새의 종류에는 검은머리썩새, 북방검은머리썩새, 검은머리썩새, 썩새 등 4개종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썩새는 농경지나 숲속의 덩굴 등지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나무열매나 곡식의 낱알 등을 먹고 살아갑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이런 새를 발견했을 때에는 돌멩이를 던진 다음에 새를 놀라게 해서 날아가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번 비행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월동지에서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여 봄이 되면 이곳을 떠나 북쪽으로 이동을 하여 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가아만이 많은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아무 생각없이 새들을 날려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만 새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야생조류들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은 이미 환경이 오염되어서 사람도 살



2006.10.25. 포천천에서 촬영. (겨울철)



2006.03.28. 포천천에서 촬영. (여름철)



2006.12.14. 포천천에서 촬영. (겨울철)

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새를 발견 했을때는 그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인간과 새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문화가 하

루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하여 봅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 안전한 전기사용은 에너지절약의 지름길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안병호 대표이사

전기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



▶변압기 부하 점검